

<http://dx.doi.org/10.17703/JCCT.2022.8.5.121>

JCCT 2022-9-14

사회적경제 고찰 : 정의, 범주 그리고 몇 가지 쟁점들

Definitions, Categories, and Several Debating Points of Social Economy

김신영*

Sin-Young Kim*

요약 이 연구는 최근 한국 사회과학계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주제인 사회적경제를 개괄한 후 사회적경제를 둘러싼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사회적경제의 개념정의가 이루어 질 것이다. 국제기관과 국내의 사회적경제 전문 연구자들의 개념정의들을 구체적으로 살펴 본 후, 사회적경제의 범주에 대한 논의까지 진행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논의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국내 사회적경제의 역사적 발전경로와 범주 및 유형들이 다루어 질 것이다. 다음으로 이 연구의 핵심주제인 사회적경제 관련 쟁점들을 다룬다. 사회적경제 관련 쟁점은 크게 다섯 가지 정도이며 사회적경제의 고용창출효과 존재 여부, 사회적경제와 복지국가와의 관계 설정,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 사회적경제와 시민사회와의 관계 설정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와 기본소득간의 관계가 다루어진다. 이 연구는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가진 전문 연구자들에게 사회적경제란 무엇이며 사회적경제에 대한 연구가 실제 시장자본주의체제속에서 어떠한 거시사회학적 함의를 갖는지를 고민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주요어 :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와 복지국가,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

Abstract This study purports to achieve three different yet related tasks. First of all, this study reviews thoroughly social economy as an academic subject which have been drawing much attentions in social science. Secondly, this study examines developmental trajectory of social economy in Korea and reviews categories and types of social economy in current Korean society. Lastly, this study introduces several arguments around social economy. For these tasks, brief summary of the definitions of social economy from foreign and domestic scholars will be provided. Then five controversial subjects on social economy will be introduced. Those are the effect of social economy on employment, the future of social economy in the context of welfare state, the sustainability of social economy, the relationship of social economy with civil societ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economy and basic income. The author hopes that this study could provide thorough picture of social economy conceptually as well as practically for those who are interested in social economy both in academia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Key words : Social Economy, Definition of Social Economy, Debates upon Social Economy

*정희원, 한양사이버대학교 실버산업학과 교수 (제1저자)
접수일: 2022년 7월 21일, 수정완료일: 2022년 8월 15일
게재확정일: 2022년 9월 1일

Received: July 21, 2022 / Revised: August 15, 2022

Accepted: September 1, 2022

*Corresponding Author: kimsy@hycu.ac.kr

Dept. of Silver Industry management Hanyang Cyber University

1. 서론 : 사회적경제의 정의 및 범주

1. 사회적경제의 정의

먼저 OECD의 개념 정의를 살펴보면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들로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가진 조직들”로 사회적경제를 정의내리고 있고, 유럽사회경제정보센터는 사회적경제를 “자원적 조직과 비정부조직, 공동체 경제개발조직과 협동조합 등을 포함한 비영리섹터” 또는 협동조합, 공제회, 재단, 기타 사회적 목적, 지속가능한 발전, 기회의 균등, 불이익계층의 포용 등 사회적 목적을 갖고 경제활동에 기초하는 모든 시민사회조직을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경제를 구성요소, 경제논리, 그리고 행동논리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의 내릴 경우 아래와 같이 요약 가능하다[1],[2].

1) 구성요소: 협동조합 + 공제회 + 결사체

2) 규율적 기초: 사회적경제는 사람들의 결사체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하는 기업을 결합한 것으로 핵심 규율은 회원들 사이의 평등, 회원들에 의한 기업의 통제, 회원들을 위한 수익배분, 재산의 집단소유 등이다

3) 복합적 경제논리: 사회적경제는 시장, 비시장(국가에 의한 재분배의 영역), 비금전(상호성과 기부)형태의 복합적 경제논리를 갖는다.

4) 복합적 행동논리: 사회적경제는 시장논리 이외에도 시민성 논리, 내부 논리, 가치논리 등이 혼합된 복합적 행동논리에 의존한다.

좁은 의미의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장에서 운영되는 조직들의 비즈니스와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회적 조직과 실천의 양면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여기에서 사회적 목적은 불이익 계층을 위한 고용창출, 사회적으로 충족되지 않은 욕구에 대응하는 재화 및 서비스 제공, (재)교육훈련, 기술 및 재정 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한다 [3].

광의 및 협의의 사회적경제 개념정의 외에도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사회적경제 개념 정의로는 “회원들의 욕구에 기초해 회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운영하는 사람 중심의 조직 또는 기업이며 사회적, 민주적, 연대중심적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조직”이 있다. 사회적

경제 전문 연구자들에 의한 개념 정의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적경제를 협동기업, 공제회, 결사체들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정의내리고 있으며 핵심 특징으로 1) 회원이나 공동체에게 이윤이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 2) 자율적인 운영, 3)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의사결정, 4) 자본이 아닌 사람과 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수익배분을 들고 있다 [2]. 다음으로 소유, 통제, 제품, 제정, 그리고 가치의 영역에서 각각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내용의 방대함으로 인해 구체적인 소개는 생략하는 것으로 한다 [4]. 계속해서, 사회적경제를 1) 사회적 목표가 상업적 목표에 우선하며, 2) 수익의 원천은 다양할 수 있으며(자체사업, 회비수입, 정부지원, 기업후원 등), 3) 자원봉사 활동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4) 일반적으로 수익금은 서비스 개선이나 조직 활동의 지속에 충당되며, 5) 조직의 순자산은 누구의 소유도 아닌 사회적 자선이며, 마지막으로 6) 1인 1표에 의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특징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 [5].

한국에서는 최근 수년 사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개념 정의나 범주에 대한 학계 또는 정부 차원의 합의된 결론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서구에서 역시 이와 같은 현상은 관찰되며 이는 아마도 사회적경제라는 체제 자체가 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가능하다.

국내 연구자들의 사회적경제 개념 정의를 살펴보면 사회적경제를 법적·제도적 접근, 규범적 운영원리에 기초한 접근, 그리고 사회경제적 메커니즘에 대한 접근으로 나누어 각각 정의하고 있다 [6] [7]. 법적·제도적 차원에서의 사회적경제는 시장 부문과 공공 부문 사이에서 양자를 통해 만족되지 못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활동 영역으로 규정되며, 일반적으로 협동조합기업, 공제조합, 연합체의 성격을 가진 다양한 비영리조직들과 재단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 내려진다. 규범적 운영원리 측면에서의 사회적경제는 협동조합, 공제조합, 그리고 비영리조직이 수행하는 경제활동으로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사회경제적 조절 메커니즘 측면에서 사회적경제는 경제를 사회의 매개적인 영역으로 설정하고 사회적경제의 조절적 사회

경제체제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때 사회적경제는 단순히 시민사회영역에 국한되지 않으며 민간, 정부, 가 구 경제 간의 매개적 공간에 위치하는 것으로 규정지워 진다.

한국 정부는 사회적경제를 “구성원 간 협력과 자조 를 바탕으로 재화 및 요역의 생산과 판매를 통해 사회 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 또는 “구성원 상호 간의 협력과 연대, 적극적인 자기혁신과 발전, 기타 공익에 대한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 는 모든 경제적 활동”, 또는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 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 공동체 재생과 지역 순환 경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 회적경제조직이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 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 등으로 정의 내 린 바 있다.

2. 사회적경제의 범주

사회적경제의 범주에 대한 논의는 어디까지를 사회 적경제 조직으로 보느냐의 문제, 즉 구획 확정에 대한 논의라고 할 수 있으며 크게 조직의 성격과 운영원칙의 측면에서 다루어져 왔다. 드푸르니는 사회적경제조직을 협동조합, 공제조합, 결사체, 재단으로 구성된다고 주장 하며 이윤보다는 구성원이나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한 활동, 독립적 운영과 민주적 의사결정, 자본보다는 인간 과 노동을 고려한 소득배분 등의 운영원칙을 사회적경 제조직 범주로의 포함 원칙으로 바라보고 있다. 선행연구 [8]은 전통적인 사회적경제 조직은 협동조합, 공제조 합, 그리고 결사체이며 여기에 사적부문의 기업이긴 하 나 협동조합의 성격을 갖는 기업들과 공공 부문의 기관 들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적경제의 범주는 사회적경제가 활동하는 영역에 대한 논의와도 직결되는데, 영역의 측면에서 보자면 사 회적경제의 활동영역은 민간시장과 공공 부문 사이에 존재하는 영역, 즉 제3 섹터가 주체가 되는 영역을 말 한다. 따라서 사회적경제의 성격은 정부 주도 개입경제 나 경쟁적 시장경제 양측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고 위 치 해 있으며 국가로부터의 자율성과 비시장적인 박애 주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게 된다[9], [10].

사회적경제는 다양한 형태로 진화와 발전을 거듭

하고 있으며 모든 사회적경제조직들을 포괄하는 범주 화 작업을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성격과 운영원 칩을 두 개의 큰 축으로 놓고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대표적인 사회적경제 범주 관련 논의 중, 드푸르니 에 따르면 사회적경제는 협동조합, 공제조합, 결사체, 재단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이윤보다는 구성원이나 지 역사회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우선시하며 독립적 운영 과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그리고 자본보다는 인간과 노 동을 우선시하는 소득배분 등을 운영의 원칙으로 한다. 니낙스와 그의 동료는 사회적경제 범주에 전통적인 사 회적경제조직으로서 협동조합, 공제조합, 결사체를, 그 리고 협동조합의 성격을 갖는 사적영역의 기업 및 공공 부문의 기관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목적과 가치 역시 운영원칙 만큼 중요한 범주구분의 요소라고 주장 한다[8].

II. 한국의 사회적경제

한국에서의 사회적경제 역시 한국사회의 독특한 정 치, 경제, 사회,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하며 발전해 왔으 며 한국 사회적경제의 특성과 조직유형에 대해 살펴보 고자 한다. 먼저 한국 사회적경제의 특성은 크게 세 가 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경우 1차 산업 중심 시기의 전통적 사회적경제라기 보다는 실업, 양극 화, 사회서비스 수요의 증가 등과 같은 비교적 최근의 상황변화에 대한 새로운 대응방식의 요구되는 시점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둘째, 한국의 사회적경제의 등 장과 발전 배경에는 정부의 법적근거 마련과 적극 지원 이라는 동력이 작용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의 사회 적경제조직들의, 즉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정부 의존성에서 잘 드러난다. 셋째, 한국의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역사회 공동체조직화 능력에 있어 아직은 취 약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제시하였던 한국 사회적경제의 정부의존성과도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한국 사회적경제의 조직유형을 논함에 있어 가장 중 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정부정책과 관련 법령이다. 이 들 법령들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되며 관장하는 부처 가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유형으로는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농어촌공동회사,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이 있다. 한국 사회적경제의 범주에 대한 국내 연구자들의 논의 를 정리해 보면, 전통적 사회적경제에 농협, 수협, 산림

조합, 새마을금고, 신협을 새로운 사회적경제에 소비자 생활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을 포함시키는 경우, 또는 농협이나 수협과 같이 해방 이후 조직된 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의 기반해서 생겨났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연구가 존재한다. 한국의 사회적경제를 구사회적경제와 신사회적경제로 구분하고 전자에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를, 후자에는 생협,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협동조합 등이 해당된다고 주장역시 존재한다.

한국의 사회적경제 범주 관련 최근 논의를 요약하자면, 사회적경제 범주 구분의 가장 기본 축은 조직의 성격과 운영방식을 교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민주성, 경제성, 사회성의 요소를 모두 갖추었거나 혹은 부분적으로 이들을 결합한 혼합조직들이 사회적경제에 해당한다고 보는 주장과 인간의 행위동기에 대한 가정과 조정양식의 차이를 교차하여 사회적경제 범주를 구분하고자 주장이 있다. 아래 그림에서 수평축은 인간의 행위동기를, 수직축은 조정양식을 나타내며 네 개의 모서리에 이념형 수준의 네 가지 조정양식(과두제, 국가, 시장, 공동체)을 배치하고 있다[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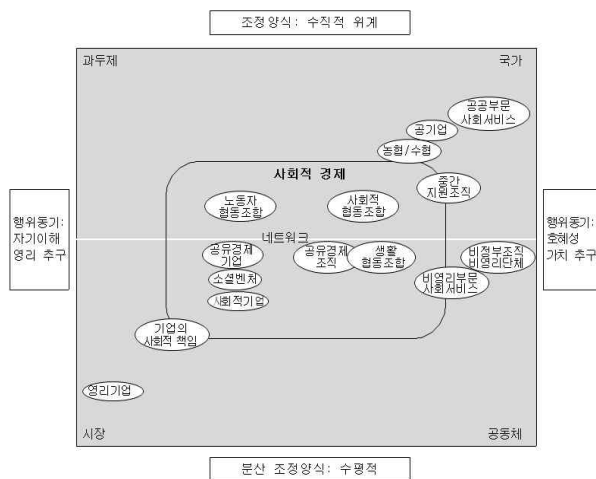


그림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유형화
Figure 1. The Typology of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III. 사회적경제를 둘러싼 쟁점들

1. 사회적경제조직의 고용효과: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이 장에서는 사회적경제의 취약계층 고용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취약계층을 어떻게 정의 내릴 것

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적 및 경험적 관점들이 존재하며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첫째, 소득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을 빈곤층으로 정의하는 관점, 둘째, 일반적으로 고용시장에서의 상황(일자리 속성, 취업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을 정의하는 관점(청년/노인/장애인 등), 마지막으로 인적속성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을 정리하는 관점이(여성/소수인종/북한이탈주민 등) 존재한다.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에 관한 연구들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취약계층 고용창출에 대해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으며 일자리제공형에 비해 다른 유형의 사회적 기업이 취약계층 고용에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또한 밝히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고용창출이 비숙련노동 집약산업에 한정되고 있음을 지적한 연구 또는 취약계층 가운데 고령자 고용 비율이 해당 사회적 기업의 재무성과와 사회적 성과 모두에서 의미 있는 수준의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밝힌 연구 또한 존재한다 [10].

2. 자본주의이 미래 대안으로서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에 대한 평가와 전망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첫 번째 주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으로서 사회적경제는 신자유주의의 경제 전략의 일환이며 결국 신자유주의의 대리인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사회적경제란 신자유주의의 복지국가 해체과정에서 나타나는 전략의 일환이며 비영리조직으로 국가주도의 공공서비스를 대체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따라서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정부역할을 과도하게 대체하고 사회적 목적이 아닌 경제적 수익 추구를 과도하게 앞세우게 될 경우 역시 신자유주의의 논리에 압도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7].

다음 주장은 사회적경제는 고용의 불안정성과 복지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들에, 예컨대, 대량실업이나 소득양극화 등, 대응하기 위한 국가와 시장실패에 대한 보완재로서 기능한다는 것이다. 시민사회의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역량의 동원과 이에 따라 증가하는 사회적 자본이 고용증가와 사회서비스 제공에 긍정적으로 기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사회적경제는 완전고용과 지속가능한 복지제공에 실패한 시장과

국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대응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는 구조적으로 빈곤과 양극화, 더 나아가 사회적 배제를 양산할 수 밖에 없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로부터 해방의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시각이다. 이는 초기 사회적경제 주창자들의 주장에서부터 발견되며 자본주의체제 이행의 씨앗은 자본주의 체제 내부에서 발견되며 현 자본주의 체제가 달성해 낼 수 없는 것들을, 예컨대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소득 제공, 임금관계가 아닌 사회적 결속과 유대 등,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3.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

사회적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침체된 공동체의 사회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동시에 유용한 재화 및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시장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 할 수 있는 경제체제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여전히 시장과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오히려 신자유주의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3].

먼저 사회적경제에 대한 비판론은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제기된다. 첫째, 현실에서 관찰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다양성은 무엇이 제대로 된 사회적경제조직이냐라는 근원적 질문을 가져오며 이론적 및 규범적으로 논의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모범적 사회적경제조직은 현실에서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실은 아마도 개념정의 단계에서 사회적경제가 갖는 애매모호함 또는 불확실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현실에서 관찰되는 사회적경제는 실제로 지역(지방)공동체의 자원, 특히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의 활성화에 그다지 의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셋째,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효과는, 예컨대 일자리 창출, 혁신적 기업가 정신 증대, 지역 활성화, 복지제공의 혁신 등, 실제로 그다지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는 신자유주의 복지국가 대체전략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다음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낙관론은 복지국가 모델의 한계에 주로 기반하고 있다. 공공부문 확대가 초래한 복지국가의 재정적 한계와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은 국가가 더 이상 사회적경제적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공급자가 아니라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사회적 요구들은 복잡 다단해지며, 교육/보건/사회서비스 등의 핵심 영역에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두드러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당이나 노조 등 전통적인 문제해결 조직들의 위계성과 권위적 성격은 사회적경제의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기업조직 역시 사회구성원이 공유하는 이익추구 이외의 다른 가치들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사회적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4. 사회적경제와 시민사회

사회적경제와 시민사회 간의 관계 설정 문제는 사회적경제가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와 복지국가 간의 관계 설정과 마찬가지로 사회적경제와 시민사회 간의 관계 설정 역시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먼저 긍정적 시각을 정리하자면, 첫째, 사회적경제가 시민들의 사회서비스 측면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다면 기존 시민사회가 보여 왔던 정치·사회적 측면으로의 초점과 이에 따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경제를 통한 시민사회 영역의 확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적경제를 통한 시민들의 참여는 지역 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의 활용을 가능케 하고 결과적으로 시민들 간의 유대와 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사회자본 증대에 기여한다는 것이다[7].

사회적경제의 시민사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주장하는 시각으로는 첫째, 사회적경제의 이중성으로 인해 이윤추구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둘째, 부분적이긴 하나 사회적경제의 기업가 정신은 결국 시민사회의 공동체정신을 훼손시킬 수 있으며 시민사회의 시장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당시의 공공근로 사업,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사업 및 이후의 사회서비스 관련 사업, 사회적 기업법 시행, 그리고 사회적경제관련3법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적경제 발전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은 압도적이었으며 상대적으로 시민사회의 역할을 매우 제한적이었다. 국가주도의 성격에 대한 비판이 존재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시민

사회의 역할이 정부 서비스 전달 역할에 그치고 있으며

시민사회 주도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여전히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5. 사회적경제와 기본소득

사회적경제와 기본소득은, 최근 논의로만 한정시켜 보자면, 신자유주의로부터의 도전과 복지국가의 위기로 부터 시작된 현실적 고민이라는 점에서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이 아이디어 수준을 넘어선 복지국가의 실제적 대안수준의 정책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반면, 사회적경제는 일단 개념수준에서의 모호성이 여전히 지배적이며, 현실에서는 시장자본주의 체제의 부수적 보완물로서의 위치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전자가 임금소득을 기반으로 한 보편적 사회보험 위주의 구조로 인해 한계에 봉착한 복지국가의 내재적 문제에 대한 원론적 수준의 대응인 반면, 후자는, 특히 국내의 경우,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과 빈곤 문제 및 점진하는 복지진달체계의 권위주의적 성격에 대한 미세 대응 수준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디지털 자본주의의 등장과 확산으로 인한 고용 시장 상황의 악화와 사회적 불안정성의 증가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사회적경제와 기본소득의 동시적 필요성을 주장하는 학자군 또는 사회적(공익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제와 기본소득의 접점을 찾는 학자군들이 있긴 하나 여전히 소수 의견에 머무르고 있는 인상이다.

기본소득과 사회적경제의 연동의 문제는 향후 전지구적 시장질서 및 한국의 경제체제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따라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즉, 소위 ‘혼합경제’라고 불리는 국가에 의한 중앙집권적 복지국가의 비효율성, 시장자본주의의 승자독식구조의 문제, 그리고 시민사회의 국가에 대한 종속성과 타율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어떻게 새로운 형태의 경제체제를 만들어 내느냐에 따라 기본소득과 사회적경제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

References

[1] Shragge, E., Graefe,P., Fontan,J. 2001. “The Citizenship Building Consequences of Quebec’s Social Economy.” Canadian Policy Research Network.

[2] Defourny,J. and Develtere,P.1999. “The Social Economy: Worldwide Making of a Third Sector”, Fontenau, eds., The Social Economy in North and south. Belgium: Hoger Instiuit voor de Arbeid

[3] Choo Sungsoo. 2019. 『Social Economy, Theory, Institutions, and Policy』. Hanyang University Press.

[4] Arther, L., Cato, M., Keenoy, T. and Smith, K. 2005.“Developing an Operational Definition of Social Economy.” <http://arnova.omnibooksonline.com/2006/data/papers/PN062020.3.pdf>

[5] Quarter,J. 1992. Canada’s Social Economy. James Lorimer & Company.

[6] Chang Wonbong. 2006. 『Theory and Reality of Social Economy』. Nanoom Press.

[7] Ko Donghyun et al. 2020. 『Social Economy and Social Value: The Old Future of Capitalism』. Hanwool Academy.

[8] Ninacs, William. 2002.“A Review of the Theory and Practice of Social Economy.”SRDC Working Paper Series 02-02. Social Research and Demonstration Corporation.

[9] Song BaekSeok. 2011. 『The Models of Social Economy and Policy for Social Enterprises in Korea』. 《Public Society Studies》, Vol 1 No 2, pp. 1~22.

[10]Byeon Jjyeon. 2022. 『The Effects on Characteristics of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upon Employment in Local Areas』.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 이 논문은 2021년도 한양사이버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서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임